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천배 정진 모연 1억3800만원
난치병어린이 치료기금 전달
장애아동과 따뜻한 자비나눔

“열심히 치료 잘 받아요. 우리 파이팅 하자.”
지난 8월30일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최승현(15)군에게 이같이 말하자, 최 군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에서 모금된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관을 방문한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환자 대표로 참석한 최 군을 만나 용기를 북돋는 법문으로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현재 최 군은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뇌병변 1급 장애를 겪고 있지만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와 작업, 언어치료를 받으며 재활에 힘쓰고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복지관을 함께 방문한 최 군 부모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물리치료사에게도 “치료 받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느냐. 고생 많으시다”며 복지머니와 단주를 선물했다. 최 군의 아버지인 최은영 씨는 “이대로 두면 목이 굳기 때문에 집에서든 꾸준히 운동을 시키고 있다. 스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합장 반배로 인사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총 1억3800만원의 자비나눔 성금을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지원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지난 4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백혈병과 심장병, 소아암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제16회 난치병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였으며, 향후 국내 어린이 15명과 라오스 어린이 등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종단은 앞으로도 난치병 어린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전달식을 마친 이후 복지관 1층에서 종사자들과 이용객들에게 직접 단주를 채워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당부하며 자비나눔 방문을 마쳤다.

한편 3000배 철야정진은 지난 2001년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362명의 어린이들에게 9억7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8월30일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에서 모금된 자비나눔 성금 1억3800만원을 전달하며 환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사진은 이날 환자 대표로 참석한 최승현 군과 물리치료사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말을 전하는 총무원장 스님.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문수사 목조삼불좌상
청량사 건칠약사불상
심택사 법화경 등 9점 보물된다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9건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라고 지난 8월30일 밝혔다. 문수사는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이 일괄로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모신 것으로 1654년 벽암각성(1575~1660)스님의 문도 주축으로 조성했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보물 999호 해인사 건칠회랑대사좌상과 함께 우리나라 건칠불상의 시원적 작품으로 조각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건칠불은 흙으로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심배를 입히고 칠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일정한 두께를 완성한 뒤 조각해 만든 상이다. 청량사 건칠약사불은 석굴암 본존불 등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의 양식을 띠고 있는데, 이르면 8세기 후반, 늦어도 10세기 전반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본각사 소장 <묘법연화경>권5~7과 서울 심택사 소장 <묘법연화경>권4~7은 조선 전기 왕실판본으로, 조선초기 불교사와 인쇄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이밖에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과 부산 북한동 출토 금동관, 정조 어찰첩, <조선경국전> 등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인연을 향기롭게’ 만드는 승보공양 운동

심장병 치료 도움받은 용담스님
보은의 뜻으로 후원자 모집 앞장
정오스님은 ‘노스님 지원’ 담례로
법당에 현수막 걸고 ARS 홍보도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스님)의 지원을 받은 스님들이 승려복지 활성화를 위한 승보공양운동에 적극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양 해인사미타원에서 기도소임을 맡고 있는 용담스님은 심장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위해 정성을 보태준 승려복지회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직접 후원자 모집에 나섰다. 스님은 지난 2009년 심장근육이 갑자기 커지면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받고 입·퇴원을 반복하던 외증, 입원진료비로 42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용담스님은 “갑자기 심장병을 진단받고 진료비와 입원비, 약값까지 상당히 큰 액수의 금액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종단 차원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신정을 했다”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승려복지회 도움으로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말했다.

주변 도반과 사찰 신도들로부터 받은 후원신청서는 총 13건. 앞으로도 더 많은 스님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자 발굴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스님은 “수많은 불자들과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수행정진에 더욱 매진하는 것”이라며 “병고로 힘들어하는 스님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 장안사 주지 정오스님은 자체 제작한 대형 현수막을 경내 해동전에 걸고 불자와 시민들에게 승려복지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뇌경색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문중 노스님에게 1000여만원을 지원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에서 이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수막에는 ‘인연을 향기롭게 승가의 수행과 포교를 위한 승보공양’이라는 문구와 함께 ARS안내번호와 동참방법이 적혀있다. 법회 때도 법문을 통해 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면에서 계속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금오선사 탄신 120주년
‘금 까마귀...’ 출판 격려
월서스님, 본지 발전기금 전달

월로의원 월서스님(제5 교구본사 범주사 조실·사진)이 지난 8월25일 불교신문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쾌척했다. 월서스님은 “소남의 은사이며 불교정화운동을 이끌었던 금오선사께서 탄신하신지 올해 120주년을 맞아 불교신문이 선사의 삶과 정화운동 선사상을 조명하는 평전을 내어 이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발전기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월서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오선수행연구원은 지난 2014년 금오스님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기획을 연재했다. 이 연재물을 토대로 불교신문출판부는 금오선수행연구원과 월서스님의 도움 아래 금오스님 평전인 <금 까마귀 계수나무 위를 날고>를 오는 6월 출간한다.

월서스님은 은사 스님의 선사상을 선양하고 참선하는 종단 가풍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060-700-1027
- 문자모연: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할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농업 301-0160-9713-71 (계좌번호조계종복지재단)
- 모연문의: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辭 令

홍승도
승업무국장
영남본부장

2016년 9월 1일자

社 告

부산지사장 모집

- 활동지역: 부산지역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경력증명서, 조계종 신도증 사본, 해당지역 조계종사찰 주지 스님 추천서
- 접수마감: 2016년 9월 7일(수)
- 전형절차: 1차-서류, 2차-면접 / 대상자 개별통지
-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5층 불교신문사 관리부 (건지동, 대한불교조계종전법회관)
- 문의: (02)730-4489(담당: 나재형)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불교신문사

International Seminar on Seon & Architecture
- Design Language & Expression of Seon Architecture

禪

국제 선(禪) 건축 세미나 선(禪) 건축의 언어와 표정

2016년 9월 10일(토) 오후 1시 ~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최·주관: 전국선원수좌회
(재) 선원수좌회문화복지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개회사: 석곡 스님(중앙사 주지)
환영사: 수불 스님(문경세계명상마을 공동추진위원장)
축사: 정찬 스님(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지홍 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윤홍준(선 문화재청장), 유성현(국회의원), 고유현(문경시장) -무슨

기초발제: 의정 스님(문경세계명상마을 공동추진위원장), 승효상(이로계 대표)

발표자: 토마스 한라원(미국, Pratt Institute 건축학과 교수), 알란 파워(영국, Alan Power Architects Ltd 대표), 미나미 아스히로(일본, 고쿠지칸 대학 건축학과 교수), 스텔라 토모리(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김개천(한국,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토론자: 홍광표(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 부설 사찰조경연구소 소장) - 좌장, 김성우(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김음미(금성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조세환(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화광 스님(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자문위원), 정명 스님(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건축기획총괄단장)

문의처: (재)선원수좌회문화복지회 02)922-9967 국제 선 건축 세미나 준비위원회 02)2649-6546